

雪花紙에 대한 연구

A Study on Sulwhaji

정 선 영(Sun-Young Jung)*

〈 목 차 〉

I. 서론	1. 原料
II. 설화지의 抄造時期와 產地	2. 用途
III. 설화지의 特徵과 製法	V. 結 論
IV. 설화지의 原料와 用途	

초 록

설화지는 16세기 이전부터 19세기 이후까지 초조된 종이로서, 하얗고 아름다운 전통 우리나라 종이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종이이다. 원산지는 평康이며, 17세기 이후 남원 순창, 진주 등지에서도 초조되었다. 원료는 뽕나무로서, 겨울철에 눈을 이용하여 표백하고(雪晒) 초조하였다. 서화용이나 인쇄용지로 사용되었으며, 궁중에서 혹은 사신의 예물로 사용된 고급품이었다.

주제어: 설화지, 평강, 설쇄

ABSTRACT

Sulwhaji(雪花紙, meaning "snow-white flower paper") had been originally manufactured before 16th century until after 19th century in Pyunggang, Korea, which represented the typical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Korean paper. Since 17th century, however, it had been also made in Namwon, Sunchang, Jinju and so on. Its material was mulberry bark tree and was bleached beautifully white by using snow. It was highly qualified mainly used for painting, calligraphy, and book printing. That had been used in the Royal palace and as cherished gift for foreign envoys.

Key Words: Sulwhaji(雪花紙), Pyunggang

*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syjung@kwangju.ac.kr)

• 접수일: 2007년 2월 24일 • 초심사일: 2007년 3월 5일 • 최종심사일: 2007년 3월 22일

I. 서론

종이의 명칭은 종이가 발명된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일정 수준으로 품질이 제고되고 수요가 발생된 이후에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초기에는 종이의 종류와 용도가 매우 한정되었으므로 명칭이 분화될 수 없었을 것이다.

〈文房肆攷圖說〉에 보면 蔡倫이 어망으로 종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網紙라 하였으며, 후세사람이 生布로 종이를 만들어서 麻紙라 한다고 하였다.¹⁾ 〈漢書〉에는 채륜이 和帝에게 바친 종이를 「蔡侯紙」라 하였다고 한다.²⁾ 초기에는 사용된 원료, 혹은 만든 사람에 따라서 그 명칭이 붙여진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그 같은 경우는 찾아 볼 수 없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이와 같이 만든 사람 혹은 당호 등에 의하여 붙여진 명칭이 있다.³⁾

채륜이 樹皮紙를 제조한 이후부터 다양한 원료가 사용되었으며 기술도 발전하였다. 이에 따라 품질이 제고되었으며, 더불어 종이의 용도가 확산되었고 우리나라에도 전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종이와 그 제조기술이 전래되었을 당시의 원료와 기술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 문헌이 없으므로 우리나라 초기 종이의 명칭은 알 수 없다. 우리나라 종이의 명칭은 우리나라 혹은 외국의 문헌을 통 털어 11세기 이후에서야 찾아 볼 수 있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문헌을 찾아 본 결과 약 400여 종류에 달하는 종이의 명칭을 찾을 수 있었다. 여기에는 중국의 종이와 일본의 종이 혹은 이들 지역의 제법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는 종이명칭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종이는 각각의 나라에서 초조되어 우리나라에 건너왔거나,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각기 그 나라 종이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또 거의 동일한 품질이나 원료로 이루어진 종이가 용도에 의해서 달리 지칭되는 것도 있으므로 각기 전혀 다른 400여종의 종이가 존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이는 당시에 이와 같이 다양한 원료와 제법으로 종이가 초조되고 있었으며, 다양한 용도로 수요가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대체로 종이의 명칭은 각각 원료, 용도, 산지, 가공 기술, 색깔 등 그 종이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에 의해 붙여진다. 따라서 명칭에 대한 연구는 그 종이의 특성이나 내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뿐 만 아니라 당시의 기술, 문화 혹은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인식을 가능케 해줄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그동안 검색하였던 명칭 가운데 우리나라 종이의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며, 수세기 동안 초조되어 온 雪花紙에 대하여 이의 산지, 제조방법과 시기, 사용원료, 그리고 용도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唐秉鈞 文房肆攷圖說 卷3 紙筆墨攷 紙說.

2) 後漢書 卷108 蔡倫傳.

3) 唐의 澄心堂紙와 薛濤箋이 대표적인 예이다.

II. 설화지의 抄造時期와 產地

조선초기부터 造紙所가 설치되고, 역대 왕이 종이의 품질 제고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각종 가공종이가 만들어 졌으며, 다양한 품질의 종이도 초조되고 있었다. 또 지방에서 거의 정기적으로 종이도 중앙에 납입되고 있었으며 각 지방에 지장이 배치되어 종이를 초조하고 있었다. 설화지도 당시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고품질의 종이도 생산되었던 시기에 초조되었던 수준 높은 종이 가운데 하나로 생각된다.

설화지는 우리나라의 종이명칭 가운데 原產地가 알려진 흔치 않은 종이 가운데 하나로서, 그 초조시기를 함께 알 수 있는 중요한 종이이다. 설화지가 처음으로 문헌에 나타난 것은 16세기이다.⁴⁾

송순의 <侂仰續集>에는 송순이 庚子年[1540] 十月에 경상관찰사를 제수받고 감사 인사를 하러 가서 하사받은 책에 쓰인 18자의 어필이 너무 輝煌하므로 경탄을 금치 못하여 화원을 불러 설화지에 모사토록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⁵⁾ 그런데 宣祖 6년(1573) 4월 14일자 <宣祖實錄>에 보면 “유희춘의 일기에 ‘어필 제목의 글체가 너무 방정하고 輝煌하므로 이를 경탄하여 설화지에 모사하도록 하였다’”는⁶⁾ 기록이 있다. 이들 기록은 설화지가 적어도 16세기 이전에 존재했고 그 품질이 매우 좋아서 귀중한 기록을 보존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徐命膺의 <保晚齋叢書> 卷10 紙品高下條는 造紙署의 咨文紙, 全州의 扇子紙, 簡壯紙, 注油紙 등과 함께 平康의 雪花紙가 천하에 드문 것이라고 평하고 있어 설화지의 품질과 산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문헌이다. <度支準折>에도 역시 설화지의 산지가 平康이라고 하였다. 한편 1722년 경상도에서 기술된 것으로 생각되는 <繡衣書啓>에는 진주지방에서 생산되는 종이 16종을 기술하고 있다. 그 가운데 雪花紙에 대한 설명에서 본래 설화지는 진주의 것이 아닌데 庚子[1720]년부터 百泉寺에서 설화지를 초조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설화지는 평강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한 종이이며, 평강의 특산물로 공납한 훌륭한 종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724년부터 1802년까지 생존한 洪良浩의 <耳溪集>에는 唐詩 1절을 「關東雪花紙」에 인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⁷⁾ 이 기록과 앞의 기록은 우리에게 몇 가지 정보를 시사해 준다. 「關東雪花紙」는 평강의 설화지를 뜻하고, 설화지는 이 시기에 이미 평강 이외의 다른 곳에서도 초조하고 있었으며, 그러나 평강의 설화지와 다른 지방의 그것과는 다름을 내포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 서책을 인쇄하였으나 상례는 아니었을 것이다. 예물을 받지 않으므로 특별히 관동설화지로 인쇄한 것이기

4) 李奎報의 東國李相國後集 卷9의 시 得本省送鶴翎扇分人을 보면 첫 구절에 “雪紙鶴翎翎”이 있다. 북한에서는 雪紙를 雪花紙로 번역하였다. 설화지는 그 형상을 명칭으로 하였다 하더라도 고유한 명사가 되었지만, 설지는 단지 종이의 아름다움을 형용한 것인지 확실치 않으며, 명칭의 변화과정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5) 宋純 侂仰續集 卷1 別錄 “伏觀其冊 御筆字畫 方在輝煌 不勝歎慶 卽招畫員 方論摹寫於雪花紙”

6) 宣祖實錄 卷7 6年 4月 14日 癸亥, “伏觀其冊 御筆字畫 方正輝煌 不勝歎慶 卽招畫員 方論模寫於雪花紙” 육서부록에 실려진 것으로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7) 洪良浩 耳溪集 卷14 平山府天使去思碑閣記 “凡禮幣例贈 一切不受 ...以關東雪花紙 印唐詩一帙以遺之 乃受”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하는 기록도 있다. 인조 14년(1636)에는 경상도에 설화지를 분정하여 올려 보내도록 한다는 호조의 계가 있었으며,⁸⁾ 효종 5년(1654)에는 호남에 「雪華紙」價를 酌定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⁹⁾ 「평강 설화지」의 품질이 좋지만 그 수요에 못 미치기 때문에 다른 지방에서도 초조를 하도록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8세기의 실학자 이규경의 〈五洲衍文長箋散稿〉物産辨證說에 보면 南原과 平康에서 설화지가 난다고 하였으며,¹⁰⁾ 비슷한 시기의 〈與猶堂全書〉에도 淳昌의 雪華紙로 도배를 하도록 권하였다는 기록이 있다.¹¹⁾ 〈承政院日記〉에서의 호남이 남원과 순창을 대표적으로 지칭하는지 알 수 없으나 설화지는 17세기 이후에 호남에서는 남원과 순창, 경상도에서는 진주가 대표적인 산지이며, 19세기에는 한양을 비롯한 전국에서 초조하였다고 보는 편이 옳을 것 같다. 19세기의 작품인 〈漢陽歌〉에도 설화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한양에서 초조된 종이를 말하는 것인지 분명치 않지만, 한양은 품질 좋은 종이 많이 초조되고, 모이기도 하는 곳이므로 후기에는 한양에서도 설화지가 초조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이들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설화지는 평강의 特産紙로서 18세기 이후까지 계속 평강에서 초조되었다. 둘째, 설화지를 초조하기 시작한 시기는 적어도 16세기 이전으로서, 19세기 이후까지 초조되고 있었다. 셋째, 17세기 이후에는 수요가 많으므로 그의 품질을 모방하여 평강 뿐 만아니라 진주, 남원 그리고 순창 등지의 기술과 환경이 적합한 종이산지에서 초조된 것으로 보인다.¹²⁾ 넷째, 그러나 비록 많은 지방에서 설화지가 초조되었지만 평강의 설화지는 품격 면에서 다른 지방의 그것과는 차별된 것으로 보여 진다.

Ⅲ. 설화지의 特徵과 製法

고문헌에 나타난 대표적인 우리나라 종이의 명칭인 「白硯紙」는 ‘하얗고’ 매끄러우며 아름다운 종이라고 하였다. 이후의 여러 문헌에도 이러한 기술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종이는

8) 承政院日記 仁祖 14年 8月 辛丑 "...卽者慶尙道分定雪花紙,黃菊,暗雲紙各十卷 爲先上來之意 敢啓"

9) 承政院日記 孝宗 5年 5月 1日 "備邊司啓曰... 湖南白綿,雪華等紙價 以鹽稅木酌定, 而稅木極麤 各邑與僧人皆苦之 紙地則分定各邑 鹽稅木則用於雜下事 自上言有言于該曹之教矣" 이 기록에도 정약용이 권하는 순창의 雪華紙와 같은 글자를 썼다. 호남에만 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평강의 것과 사실상 달라진 여러 가지 제법 때문에 구별하는 의미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경상도의 설화지는 여전히 「雪花紙」이기 때문이다.

10)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萬物篇

11) 丁若鏞 與猶堂全書 卷題14 黃裳幽人帖 "構茆屋三四間 正子午盤針 匠置須極精巧 用淳昌雪華紙 塗飾" 특이하게 순창의 설화지의 花는 華자이다. 花와 華는 통용되므로 같은 종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12) 李裕元 林下筆記 卷32 楮產條에 보면 호남이 제일 좋은데 그 가운데 남원의 것이 "色白如雪"이라고 하고 이유가 水性때문이라고 하였다.

회고 매끄러운 것이 그 특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호암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754년 이전에 초조된 <新羅白紙墨書大方廣佛華嚴經>의 종이도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매우 하얗고 품질이 좋다. 설화지는 바로 이러한 우리 종이의 특성을 지녔던 종이임을 짐작할 수 있다.

「雪花」는 국어사전에 보면 ‘눈송이’, 혹은 ‘나뭇가지에 꽃처럼 붙은 눈발’을 말한다. <廣才物譜>는 설화지에 대한 설명에서 ‘색깔이 눈과 같이 하얗다’고 하였다.¹³⁾ 그러므로 설화지라는 명칭은 종이의 외양이 매우 하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책지나 서화지의 제조법으로 만들어진 종이와는 차별된다. 다펀나 뽕나무 등의 인피섬유로 만든 펄프는 알칼리로 삶은 후에도 비 섬유 물질을 약 5~10%를 함유하므로¹⁴⁾ 약간의 색깔을 지니며 특별한 공정을 거치지 않으면 눈처럼 하얗지는 않다. 즉 특별히 표백을 하지 않고는 달할 수 없는 형상이다. 설화지는 따라서 표백에 정성을 들임으로써 매우 깨끗한 품질의 종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종이를 만들 경우 표백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냇가에서 하는 것으로서 川晒라 하며, 또 하나는 눈에서 하는 방법으로서 雪晒라 하는 것이 그것이다. 원료를 삶은 후 내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원료를 자연적으로 세척하고 난 후, 널어서 일광에 표백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방법이다. 필요에 따라서 물에 넣었다 말리는 것을 반복한다. 눈을 이용하여 표백하는 방법도 역시 일광을 이용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눈에 절반을 묻었다 행하는 것이다. 눈의 자외선 반사정도가 매우 높으므로 단시간에 강력한 표백이 가능하다. 그러나 눈에 의한 표백은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어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만 가능하므로 쉬운 일은 아니다. 동절기에 눈이 있을 때만 가능한, 시간상으로나 공간적으로 매우 제한적인 방법이다.

楮紙일 경우 표백하지 않은 것과 냇가에서 한 것은 白色도가 각각 37.9~43.8%, 60% 전후이다. 서화용지는 특히 높은 白色도를 요구하는데 대체로 71.4~75.5% 정도가 된다.¹⁵⁾ 따라서 설화지는 바로 이 정도의 백색도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종이를 초조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는 품질면에서 본다면 겨울이 으뜸이다. 온도가 낮으므로 미생물의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에 물이나 원료, 혹은 다펀 같은 충전제 등의 품질이 변하지 않아서 종이의 품질도 좋다. 그러나 지장으로서 본다면 매우 힘든 작업이 될 것이다. 각종 작업을 추운 곳에서 진행해야 할 뿐 만 아니라 종이를 뜨는 과정에서 찬 물에 손을 계속 담가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겨울에 종이를 뜨는 것은 특별한 수효와 품질이 요구될 때일 것이다. 중국의 「澄心堂紙」는 唐代의 名品 종지로 궁중에서 어용으로 사용되었고 송대 문인들의 큰 찬사를 받으며 널리 알려졌는데 이 것이 바로 얼음물에서 뜬 종이라고 한다.¹⁶⁾

13) 廣才物譜 卷1 文學部 “色白如雪”

14) 中島今吉, 最新和紙手漉法, 東京, 丸善出版株式會社, 昭和 21[1946], p.165.

15) 加藤晴治, 和紙, 東京, 東京電氣大學出版局, 昭和41[1966], p.116.

16) 반지성저, 조병목역, 중국제지기술사, 광일문화사, 2002, pp.131-133.

평강은 고구려의 斧壤縣 혹은 於斯內縣이었던 곳으로 고려 현종 9년(1018)에 평강으로 개칭되었다. 현재는 강원도에 속한 군으로서 철원, 이천, 김화, 그리고 회양군에 접한 지역이다. 분수령과 용암대지로 이루어져 있다. 대륙성 기후를 나타내어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이가 심하며, 여름에는 강수량이 많지만 용암이 지층을 이루어 지하수가 깊다. 반면 겨울에는 눈의 적설량도 많고 눈이 내리는 날짜도 많은 곳이다.

평강과 서울, 그리고 진주의 눈이 쌓인 날짜(적설일)와 눈이 오는 날짜(신적설일)을 비교하여 보았다. 서울(한양)에는 당시에 造紙署가 있어서 품질 좋은 종이를 만들고 있었던 곳이며 진주는 18세기부터 설화지를 초조하던 곳이기 때문이다. 시점은 다르지만 최근의 기후도 일정부분 당시와 유사한 현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기상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평강에는 기상청의 조사지점이 없지만 평강과 인접하고 비슷한 현상을 보이는 철원의 기록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기상청이 조사한 철원의 적설일과 신적설일은 다음과 같다.¹⁷⁾

〈표 1〉 철원(평강)과 서울 그리고 진주의 적설일과 신적설일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적설일	신적설일	적설일	신적설일	적설일	신적설일	적설일	신적설일	적설일	신적설일	적설일	신적설일	적설일	신적설일
철원(평강)	19	21	42	39	71	44	49	30	47	29	23	24	37	32
서울	18	14	14	29	57	35	20	23	19	15	28	17	19	26
진주	2	2	0	4	12	9	2	7	9	6	8	4	8	8

철원(평강)은 대관령을 제외하고 눈이 내린 날짜나 적설날짜가 다 같이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일조량의 경우도 1971년부터 2000년까지의 일조합이 철원(평강) 2072hr., 일사량 13.21MJ/m², 서울 일조합 2114.1hr., 일사량 11.35MJ/m², 진주 2214.4 hr., 일사량 13.4MJ/m² 이다.¹⁸⁾ 다른 도시와 비교하여 적지 않으며 우수한 편이다. 맑은 날과 흐린 날을 조사한 결과를 진주와 비교한다 하여도 많은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눈은 많되 자외선도 필요한 눈표백에 매우 적합한 조건이다.

〈朝鮮王朝實錄〉에서 검색한 바에 의하면 조선 전 시대에 걸쳐 평강에 4월에 눈이 온 기록이 7번이었으며, 이 가운데 폭설도 있어 겨울처럼 눈이 내렸다는 기록도 있다. 뿐만 아니라 4월에 서리나 우박이 있었던 기록도 매우 많다. 4월은 양력으로 대체로는 5월이므로 이는 이 지방의 기온이 대체적으로는 낮고 눈이 많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1961년 이후 2000년까지 년 평균 기온이 10.1℃로서 서울, 12.2℃, 진주 13.1℃보다 낮다.

17) <www.kma.go.kr/sfc/sfc_03_06_01_01.jsp> [인용 2007. 2. 10].

18) <www.kma.go.kr/intro.html> [인용 2007. 2. 10].

이렇게 본다면 평강은 다른 곳보다 눈표백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장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겨울이 길기 때문에 종이를 뜰 때 지장은 힘들지만 종이의 품질은 좋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겠다. 앞서 기술한 것 같이 겨울에 찬 물에서 뜨는 종이가 품질이 좋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일반적으로 주로농한기에 종이를 초조하였던 당시의 사정을 감안하면 「名紙」의 출현 여건은 갖춘 셈이다. 이와 같은 평강의 지리적 여건과 종이의 명칭으로 미루어, 눈을 이용하여 원료를 표백함으로써 눈송이처럼 하얀 종이를 생산해 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동절기에 표백을 했을 뿐만 아니라, 종이를 초조하는 전 과정을 겨울철에 하였기 때문에 품질이 높았을 것으로 짐작되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雪花紙』라命名한 것으로 생각된다.

종이의 품질을 결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물이다. 보통 종이 초조시에 원료와 물의 비율이 1:45 정도로서 그만큼 수질이 종이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 물속에 철분 등의 미네랄이 많은 경우 초조한 종이의 외관이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존성 역시 매우 떨어진다. 평강의 경우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어 물의 불순물을 걸러주므로 지하수가 깊지만 水質은 좋다. 따라서 같은 조건에서라면 특히 평강에서 초조된 종이가 품질이 좋았을 것이다. 후에 진주 百泉寺에서 설화지를 초조한 것도 百泉寺라는 명칭에서 보듯이 좋은 물이 있기 때문이며, 남원에서 설화지를 초조한 것도 이유원이 서술했듯이¹⁹⁾ 수질이 좋기 때문에 닥나무도 ‘눈처럼 하얗고’, 그것으로 만든 종이도 눈처럼 하얀 ‘雪華紙’가 될 것이다.

IV. 설화지의 原料와 用途

앞서 살펴듯이 설화지는 거의 3세기 이상 그 이름이 존재하였던 특산지이다. 이와 같은 사실이 평강지방의 지장만이 특별한 솜씨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즉 그 지방에서 밖에 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 것은 원료이거나 혹은 그 지방 특유의 기후, 또는 수질의 우수성 등이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평강은 평균기온이 낮고, 수질이 좋은 것이 설화지가 우수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원인일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외에 원료부분에서도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原料

적어도 조선초 이후 19세기까지 우리나라에서 종이원료로서 가장 선호한 것은 닥나무였다. 그러

19) 李裕元 林下筆記 권32 楮産條에 보면 호남이 제일 좋은데 그 가운데 남원의 것이 “色白如雪”이라고 하고 이유가 水性때문이라고 하였다. 닥이 눈처럼 희면 그 종이도 눈처럼 하얀 설화지가 될 것이다.

나 실제 많은 종이에서 닥 이외의 원료가 분석되고 있다. 특히 같은 장섬유인 뽕나무의 섬유가 쓰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世宗實錄地理志>에 보면 平康縣에는 논이 거의 없어서 墾田의 1.5% 정도밖에 안되며, 土宜로서 뽕나무가 기재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뽕나무는 많이 개량되고 교잡되어 있어서 종이를 만들기에 닥보다 좋은 원료는 아니지만 본래 종이원료로서 결코 열등한 재료는 아니다.²⁰⁾ 중국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뽕나무 종이의 백색도가 닥나무보다 실제로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²¹⁾ 따라서 평강에서 종이를 초조하였다면 인근에 닥나무가 많지 않고, 또 닥나무를 운반하기에 그리 쉽지 않은 지형으로 미루어 뽕나무를 그 원료로 사용하지는 않았나 생각된다. 진주에는 <新增東國輿地勝覽>에도 닥나무가 土宜로 기록되어 있어서 설화지의 원료로 닥나무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지만 경상도에서는 뽕나무를 사용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설화지는 앞서 살펴 본대로 “평강에서 雪晒하여 초조한 桑紙”이기 때문에 닥나무가 많은 전라도의 설화지는 「雪華紙」가 된 것은 아니었을까 추측해 본다. 남원에서는 ‘눈과 같은 닥나무’로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17세기에는 이미 전라도 경상도 여러 곳에서 초조되고 있었음에도 특별히 ‘평강의 종이’라고 여러 문헌에 지적한 것은 품질이나 원료 또는 제조과정 등에서 평강의 설화지가 어떤 특별성을 가졌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다.

2. 用途

설화지의 규격은 다른 종지와 마찬가지로 초기의 것은 알 수 없으나 후기의 기록에서 그 면모를 찾아 볼 수 있다. <度支準折> 紙地에 의하면 설화지는 그 길이가 2.2尺, 넓이가 1.1尺이라고 되어 있다. 다른 종지와 비교하여 본다면 宮箋, 藁精紙보다는 크고, 竹皮紙나 古綿紙 등보다는 작으며, 草注紙나 小好紙와는 길이는 비슷하지만 넓이는 작다. 특이하게 중국의 종이인 毛邊紙, 粉糖紙 등과 비슷한 크기인 것이 눈에 띈다.²²⁾ 그 이유는 아마도 설화지가 書畫紙, 혹은 書寫材料의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일반적으로 책지나 서화지는 비교적 그 크기가 작으며, 특히 폭이 작기 때문이다.

<표 2> <度支準折>의 각종 종지의 규격

	楮注常紙	草注紙	厚紙	大好紙	小好紙	三疊紙	龍扇紙	古綿紙	毛邊紙	竹皮紙	宮箋	藁精紙	雪花紙	粉糖紙
길이(尺)	2.25	2.2	2.15	2.42	2.22	3.6	3.4	2.25	2	7.5	1.3	1.5	2.2	2.1
넓이(尺)	1.7	1.5	1.4	1.7	1.6	2	2.1	1.7	1	1	1.5	1	1.1	1.1

20) 정선영, 桑紙의 保存性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4권, 제2호(2004. 12), pp.1-22.

21) 王菊華編, 中國造紙原料纖維特性及顯微圖譜. 中國輕工業出版社. 1999. pp.172-177.

22) 정선영, 고문서의 紙質. 고문서연구, 제20권(2002), p.84.

앞서 본 〈倂仰集〉과 〈宣祖實錄〉에는 어필이 너무 훌륭하여 바로 畫員을 불러 설화지에 모사하도록 하였다고 한다.²³⁾ 또 〈夢梧集〉에 보면 1768년 동궁에서 설화지 16폭을 받아서 병풍을 만들려 한다는 기록과, 또 설화지 16폭을 받아 매 8폭에 古文을 써서 병풍을 만들려 한다는 기록이 각기 쓰여 있다.²⁴⁾ 어필에 대한 찬탄을 금치 못하여 모사하도록 했다면 그 글을 길이 남기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므로 특별한 서사용, 혹은 서화용 종이를 사용했을 것으로 미루어 볼 수 있다. 그 종이 바로 설화지였을 것이다. 또 동궁전에서 고문을 써서 병풍을 만든 종이도 역시 당연히 품질이 좋은 종이일 것이다. 화가이기도 한 申光洙는 설화지에 春山을 그렸다고 그의 문집에 쓰고 있다.²⁵⁾

사신에게 주는 예물로 설화지가 사용된 경우도 많다. 〈仁祖實錄〉에는 4年(1626) 6월에 중국사신이 쓰고 남은 雪花紙와 五色紙를 관원에게 나누어 준 일에 대한 논의가 기록되어 있다.²⁶⁾ 중국에 사신으로 간 서호수와 김창업의 연행일기에도 설화지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²⁷⁾ 미루어 연행에 가져가는 예물에는 거의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창업은 咨文紙와 함께 그림, 혹은 시를 받기 위해 설화지 3丈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金增도 인조 15년(1637) 중국에 갔을 때 제독이 위해서 설화지를 준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²⁸⁾

중국 뿐 아니라 일본 사신에게도 보낸 중요 예물이었다. 〈通信使臚錄〉 일본국왕전 사신예단 목록에 설화지가 포함되어 있었으며, 일본에서 오는 接慰官의 私禮單에는 설화지 9권이 일정하게 포함되어 되어 있었다.²⁹⁾

이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설화지는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으며, 혹은 특별한 용도의 책지로도 사용되었다. 매우 품격 있는 고급 종이였으므로 궁중이나 중국, 일본 등의 사신 예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V. 결 론

설화지는 16세기 이전부터 平康에서 시작되어 19세기 이후까지 초조된 종이이며, 눈처럼 하얗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종이의 특징을 잘 나타내주는 종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종이 가운데서 설화

23) 宣祖實錄 卷7 6年 4月 14日 癸亥, 宋純 倂仰續集 卷1 別錄 “伏觀其冊 御筆字畫 方在輝煌 不勝歎慶 卽招畫員 方論摹寫於雪花紙”

24) 金鍾秀 夢梧集 卷3 春宮侍講日記, 卷4 東宮書進無逸抑屏風跋,

25) 申光洙 石北集 卷6 崔北雪江圖歌

26) 仁祖實錄 卷13 4年 6月 9日 庚辰

27)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卷4 癸巳年 1月 乙巳, 戊申 徐浩修 燕行紀 卷3 庚戌年 8月 戊辰, 壬申

28) 金增 潛谷遺稿 卷14 朝京日錄 丁丑年 正月 初五日

29) 增訂交隣志 卷2 關白告訃差倭에는 설화지를 10권을 주었으나 인조 승하시에 온 접위관 사예단에는 9권이며, 이후 1776년까지 접위관에게는 9권이 상례였다.

지와 같이 그 산지와 특징을 알 수 있는 종이는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몇 세기 동안 꾸준한 지방에서 特産紙로써 초조된 종이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설화지는 우리나라 제지역사상 매우 중요한 종이라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설화지의 抄造時期, 產地, 原料, 製造過程, 그리고 用途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 설화지는 평강에서 처음으로 초조 되기 시작한 종이로서
2. 그 시기는 16세기 이전이었다. 17세기 이후에는 진주, 남원 순창 등지에서도 초조 되었으며, 19세기 이후까지 존재하였다.
3. 명칭처럼 눈송이 같이 하얗고 아름다운 종이지만 단순히 美稱만은 아니며
4. 눈을 사용하여 그 원료를 표백한 것으로 생각된다.
5. 표백과정 뿐만 아니라 초조시기도 주로 겨울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6. 원료는 당지에서 나오는 뽕나무의 인피섬유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7. 용도는 서화지와 서사재료였다. 궁중에서 애용된 종이이며, 중국과 일본의 사신에게 주는 예단에도 포함된 매우 품격 있는 종이였다.
8. 크기는 2.2尺 × 1.1尺, 약 43.1cm × 22.05cm이다.

참 고 문 헌

- 廣才物譜.
金堉 潛谷遺稿.
金鍾秀 夢梧集.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唐秉鈞 文房肆攷圖說.
備邊司臚錄.
徐命膺 保晚齋叢書.
徐浩修 燕行紀.
宋純 俛仰續集.
繡衣書啓.
承政院日記.
申光洙 石北集.
李圭景 五洲衍文長箋散稿.

李夏坤 頭陀草.

柳瀟 醉吃集.

丁若鏞 與猶堂全書.

朝鮮王朝實錄.

增訂交隣志.

度支準折.

通信使臚錄.

漢書.

漢陽歌.

洪良浩 耳溪集.

정선영. 桑紙의 保存性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제4권, 제2호(2004. 12), pp.1-22.

정선영. 고문서의 紙質. 고문서연구, 제20권(2002), pp.71-92.

加藤晴治. 和紙. 東京, 東京電氣大學出版局, 昭和41[1966].

반지쌍저. 조병목역. 중국제지기술사. 광일문화사. 2002.

王菊華編. 中國造紙原料纖維特性及顯微圖譜. 中國輕工業出版社. 1999

中島今吉. 最新和紙手漉法. 東京, 丸善出版株式會社. 昭和 21[1946].

기상청 <www.kma.go.kr/sfc/sfc_03_06_01_01.jsp> [인용 2007. 2. 10].